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사회복지 정체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최 광 수**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 척도를 개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이론적 접근을 통해 기독교세계관의 창조, 타락, 구속이란 관점에서 기독교사회복지의 핵심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인들은 일반사회복지의 특성과의 비교를 통해서 탐색하였다. 둘째,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찾을 때에 기독교세계관이란 관점을 찾아야 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ing)을 실시하였다. 셋째, 기독교사회복지 정체성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 문항 개발을 위해 포커스 그룹(FGI)을 2회 실시하였다. 넷째, 2회에 걸친 포커스 그룹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비 기독교사회복지 척도 문항을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된 예비 기독교사회복지 척도 문항을 통해 설문지를 구성하여 본 척도 문항들이 객관화를 이룰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계 분석을 통한 양적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사회복지 정체성 척도 개발은 최종적으로 영역, 가치, 주제, 동기, 목표, 방법, 사상, 실천이란 8개의 요인과 21개의 하위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주제어: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사회복지 정체성, 기독교세계관, 척도개발, 심층면접, 포커스 그룹 인터뷰

* 본 연구는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0. 8)을 수정·보완한 것임.

** 충신대학교 평생교육원

2012년 02월 02일 접수, 03월 12일 수정, 03월 21일 게재확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사회복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비교하여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정체성 확보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기독교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에는 최선의 마음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기독교에서 행하는 사회복지가 일반사회복지와 달리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오해와 사회복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주장들도 대두되고 있다. 사회복지가 세속적인 입장이고 이러한 방법들이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가 이념적으로 볼 때 신학적 측면의 다양한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김동춘, 2003: 306). 일반사회복지와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차이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가 사회복지를 실천할 때에 성경적 방향성을 잃게 된다면 사회복지는 기독교 내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키는 분야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기독교 병원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적인 의료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기독교 병원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 했기 때문이다(배성권·오창석, 2006: 35). 따라서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시대적 당위성을 찾는다고 말할 수 있다.

정체성을 찾는 방법으로는 일반사회복지와의 비교를 통해서 가능하다. 일반사회복지와 기독교사회복지의 인간과 사회문제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사회복지의 인간관은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기독교사회복지의 인간관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 영적인 역사와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유용한 자원으로 삼는다(이부덕, 2001: 79). 이러한 것들은 일반사회복지에는 찾아 볼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와 같이 일반사회복지와 기독교사회복지 간에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학문적 시도를 통해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사회복지와 구별된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찾아 기독교사회복지를 통해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려는 노력은 이제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사회복지와 기독교사회복지가 서로 다른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세계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당위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치 기준이 다르고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세계관이란 각 개인의 삶의 가치관에 따라 바라보고 선택하며 살아간다. 인간은 세계관을 바꿀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치중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세계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은 세계관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양승훈, 1996: 21). 그러므로 일반사회복지와 기독교사회복지 는 세계관에서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기독교세계관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기독교세계관이란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으로서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를 둔 세계관이다. 물론 기독교세계관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카톨릭과 루터, 칼빈과 웨슬레의 세계관이 다르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그리고 근본주의와 개혁주의 세계관이 다르다(양승훈, 1996: 28). 본 논문에서 말하는 기독교세계관은 어거스틴, 틴테일, 칼빈, 카이퍼, 바빙크, 도에벨트, 폴렌호벤 등을 통해 내려온 개혁주의의 세계관을 의미한다.

프랜시스 쉐퍼는 기독교세계관을 예술과 관련하여 네 가지 유형의 미술전문가의 예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첫째 유형은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예술 작업을 하는 기독교인이다. 둘째는 비기독교인으로서 비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셋째는 비록 비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세계관에 따른 예술을 하지 않는 유형이다. 이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유형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하였다(Schaeffer, 1981: 67-68).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세속적 세계관에 따른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다면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 여길 수 있다. 기독교사회복지사라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인간을 보고 사회를 보아야 한다. 만일 기독교사회복지사가 세속적인 관점으로 사회를 보고

인간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가 사회복지를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기독교 사회복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그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기독교사회복지 척도는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 및 기관, 지역 교회, 그 외 기독교정신으로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한다고 표방하는 기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기독교사회복지의 척도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의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문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사회복지 정체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기독교세계관에 따른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 (2)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의 척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삶에 대하여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전체적이고 근본적인 입장을 제공한다(Knudsen, 1988: 20). 사회복지(social welfare)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냐에 따라 사상이 달라진다. 기독교세계관은 기독교사회복지의 사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1. 기독교세계관의 창조 관점에서 본 기독교사회복지 정체성

(1) 사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윤리강령 전문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 실천이 인본주의와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¹⁾ 우리는 자칫하면 일반사회복지에서 내세우는 사상이 기독교에서 내세우는 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다. 창조주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 안에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상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단순하게 인간을 존중하는 사상이라고 단순하게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의 부분을 살펴보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일반사회복지에서 주장하는 사상은 자연주의적 휴머니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사상인 것이다(Holmes, 1985: 89). 이에 반하여 기독교사회복지는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추구한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일반사회복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발생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서비스, 사회적 급여, 사회행동 등으로 이루어진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한 복지실천이다. 그러나 기독교사회복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을 위한 실천으로 보여 마치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한 일반사회복지와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 실천의 핵심에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 담긴 신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사회복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 내지는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비록 인간에게 유익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는 만물의 질서와 어긋난다면 그것은 신본주의에 입각한 기독교사회복지가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한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한 일반사회복지가 된다.

(2) 가치

사회복지직은 많은 전문직 가운데 가장 크게 ‘가치에 기반을 둔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에 어떤 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에 크

1)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Reamer, 1999: 3).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학을 ‘가치학문’이고, ‘규범학문’이라고 까지 말한다(김용일, 2003: 99). 그러므로 가치라는 측면에서 깊은 연구는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필수적 사안이다.

일반사회복지에서의 가치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 출판의 시작은 1980년 초기부터이다. 그렇지만 가치라는 주제는 사회복지가 공식적으로 첫 출발할 때부터 중심이 되어 있었다(Reamer, 1999: 4-5). 국내에서의 사회복지 가치와 관련된 연구들은 ‘가치’ 그것 자체에 대한 연구 보다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갈등과 관련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전선영, 2005: 39).

일반사회복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윤리강령 전문을 통해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진정한 인도주의자로 인정받는 샤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Holmes, 1985: 124). 세속화된 인간관을 발전시킨 인문주의는 인간의 자율적인 이성 에 무게를 둔다. 하나님 없는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는 세속화된 인본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Knudsen, 1988: 41-42). 이러한 관점은 일반사회복지가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 여기면서 창조질서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내세운다는 증거다(Knudsen, 1988: 47). 그러나 기독교사회복지는 인간이 자율적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일반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자유는 기독교세계관에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기독교사회복지에서의 ‘자유’라는 가치는 실재적이지만 그것은 제한되어 있고 의존성을 가진 자유라고 해야 한다(Knudsen, 1988: 97).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사회복지에서의 자유는 ‘창조 질서 안의 자유’의 가치를 내세운다.

일반사회복지의 평등의 가치를 살펴볼 때, 인생을 창조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이 물질세계가 실존의 전부라고 여기는 일반사회복지는 물질세계에 공헌을 하지 못하는 인간이 존귀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해 진다. 장애인, 노인, 정신병자들은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을 주는 존재로 취급받게 되면 그들을 소중히 여길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Poe, 2002: 332). 그러나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세계관의 입장에서 평등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

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세계관에 따라 인간의 평등 문제를 바라본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 되었다는 근거에 입각하여 모든 인간은 소중한 존재로서 존엄성의 가치를 부여받으며 평등할 권리가 부여된다고 본다. 인간이 평등해야 할 이유는 이 세상의 물질세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에서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실에서 출발하여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가치에 따라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은수, 2001: 164-166).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차이에 관계없이 어린이와 어른, 남자와 여자, 정상인과 장애인, 자유인과 노예, 누구나 왕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평등한 존재’(강기정, 2004: 49)가 된다.

성경에는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미 6: 8).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신다. 신약교회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정의의 실천 의무를 도외시하지 않았다. 의에 주리고 목마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의(義)는 억압과 추방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이다(마 5: 6).²⁾ 정의의 실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시와 같다. 성경은 사랑과 정의를 연결시킨다(요일 3: 10). 기독교인이란 바로 사랑과 정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의 실체를 발견하는 자들이다(Conn, 1984: 48). 따라서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구체화 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기독교세계관의 타락 관점에서 본 기독교사회복지 정체성

(1) 동기

일반적으로 일반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동기가 인본주의가 바탕이 된 인류애가 그 동기라고 말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시킨 인류애는 또 하나의 타락의 모습이다. 타락의 핵심은 피조성에 대하여 거부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타락(죄)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와 그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로마서 1장에서는 죄란 다름 아닌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Holmes, 1985: 117). 그러므로 기독교사회복지의 동기는 하나님이 제외된 인류애가 될 수 없다.

2)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기독교사회복지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이 전제된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은 이웃의 개념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다(출 20: 16-17; 출 22: 26; 레 19: 13; 마 22: 39).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율법의 대강령을 가르쳐주셨다(마 22: 37-40).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자신이 가진 재산과 물질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황봉환, 2005: 93). 따라서 기독교 사회복지의 바로 ‘이웃 사랑’이란 동기를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

(2) 영역

일반사회복지는 그 영역을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차원과 사회문제 해결이란 사회적 차원을 그 영역으로 둔다. 그러나 기독교사회복지의 일반사회복지의 영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 차원을 포함시킨다. 영적인 차원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부분에서 비롯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영적인 접근에 관심을 기울인다. 인간의 많은 문제는 자원의 부족이 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반사회복지에서는 자원의 고갈이란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적다. 그러나 기독교사회복지의 자원의 고갈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관심과 연구를 집중시킨다. 왜냐하면 복지 핵심 중에 하나인 자원의 부족은 바로 영적인 문제에서 야기되기 때문이다.³⁾ 자원의 고갈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형벌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그 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풍부한 자원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welfare’의 상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사회복지의 영적인 부분을 중요한 영역으로 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일반사회복지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기독교사회복지의 영적인 영역으로서 접근 전략은 기도, 찬양, 소그룹 및 일대일 교제 그리고 성경공부 등이 있다(강은실, 1997: 161). 이와 같이 기독교사회복지에서 영적인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일반사회복지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전 영역에서 온

3)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무한한 자원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간은 자신의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되고 여기서 자원의 고갈을 만나게 됨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진한 치유가 이루어기 위해서 영적인 부분이 빠질 수는 없는 것이다.

3. 기독교세계관의 구속 관점에서 본 기독교사회복지 정체성

(1) 주체

주체 측면에서 볼 때, 일반사회복지는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그리고 개인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종교성과는 관련이 없이 그 주체가 결정된다. 그러나 기독교사회복지의 주체는 교회, 기독교기관, 기독교 관련단체, 기독교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기독교 신자 개인도 주체가 된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기관이나 공동체 그리고 개인이 그 주체로서 활동하게 된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기독교적 영성이 있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질 때 기독교사회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

(2) 목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선서문을 통해서 일반사회복지의 목표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하는 것임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에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을 활동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박용순, 1999: 1). 그러므로 일반사회복지의 목표는 한 마디로 ‘인간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사회복지의 인간의 행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다. 인간의 존재 목적을 성경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⁴⁾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을 대상으로 행하는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독교사회복지의 목표는 이 땅의 복지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된다. 기독교세계관은 이 세상의 나라 안에서 삶만을 말하는

4)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답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 그것은 창조의 회복의 의미로서 구속이란 개념을 가진다. 구속이란 단순한 창조로의 복귀도 아니다. 그 이상의 놀랍게 성장하고 발전된 창조의 회복을 바라본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따라서 기독교사회복지의 두 번째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하였다. 이제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맛볼 수 있다.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의 삶을 맛보게 하는 귀한 사역으로 인정받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실천하는 기독교사회복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여 시작된 나라를 만끽하면서 아직은 완전히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희망 안에서 실천된다(김은수, 2001: 180).

(3) 방법

일반사회복지는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인접 학문의 다양한 이론과 실천 기술을 활용한다. 그런데 기독교사회복지는 일반사회복지와 달리 인간과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그 해석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합리적 이론에 근거한 일반사회복지와는 달리 기독교사회복지의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 영적인 역사와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유용한 자원으로 삼는다(이부덕, 2001: 79). 따라서 기독교사회복지의는 사회복지학과 이 학문을 둘러싼 인접학문의 이론과 실천 기술에 대하여 기독교세계관적인 ‘변혁의 과정’을 거친 후에 방법론으로 채택한다.

장동민은 William Hasker의 글(Hasker, 1992)에서 착상하여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를 정립하는 모델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장동민, 2006: 41-53). 첫째는 ‘재구성주의 모델(Reconstructionist Model)’이고, 둘째는 ‘양립 모델(Compatibilist Model)’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혁모델(Transformationist Model)’이다. 장동민은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변혁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장동민, 2006: 53). 이러한 시각은 개혁주의 기독교세계관적인 입장과 같은 노선이라 할 수 있다.

일반사회복지와 달리 기독교사회복지의는 왜곡에 대항하여 진리를 선포하며 복지를 실현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진리의 말씀이 모든 인간의 삶의

기준이기에 진리를 선포한다. 이를 통해 왜곡된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사회복지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사회복지는 회개라는 중요한 개념을 인정하여 적용한다.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이기 때문에 기독교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할 때 그의 문제를 근원적인 해결로서 회개를 권유하는 것이다. 반면에 일반사회복지는 회개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기 때문에 비록 비성경적인 삶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일반사회복지와 기독교사회복지의 차이

	구분	일반사회복지	기독교사회복지
창조	사상	인본적 휴머니즘 (하나님이 배제된 인본주의 사상)	신본적 휴머니즘 (신본주의가 전제된 휴머니즘 사상)
	가치	자유, 평등, 정의, 민주주의,	창조질서 안의 자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평등, 하나님 나라의 정의
타락	동기	인류애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하나님 사랑이 전제된 이웃 사랑
	영역 (범위)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차원
구속	주체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개인	교회, 기독교기관, 기독교관련단체, 기독교공동체, 기독교신자개인
	목표	인간의 행복 복지국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방법	사회복지학, 인접학문의 이론과 실천 기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 회개를 요청하지 않음	사회복지학과 인접 학문의 이론과 실천 기술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적용, 진리의 선포(왜곡에 대한 대항) 회개의 권유

III.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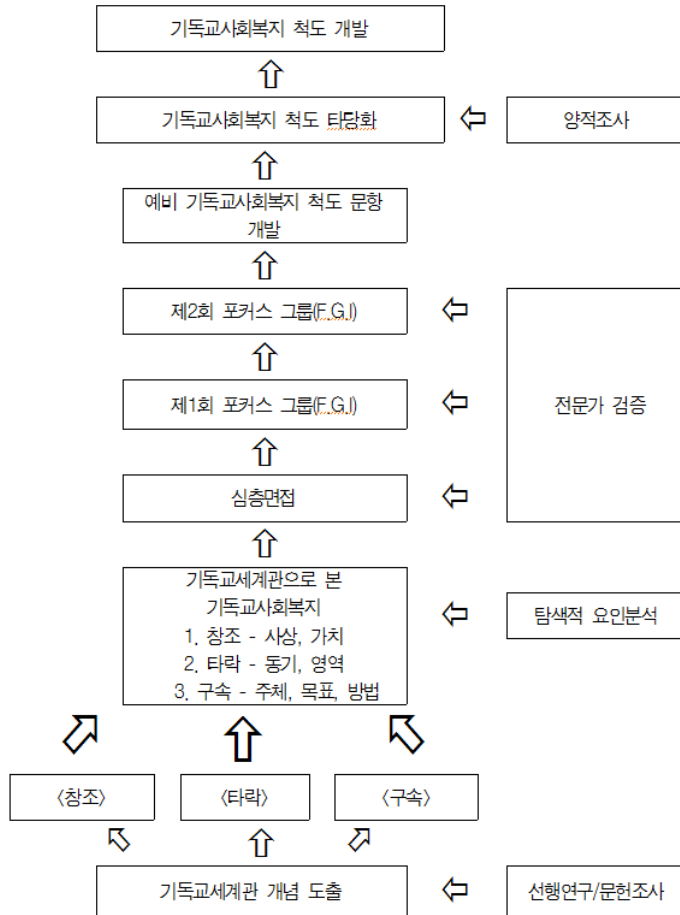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로 먼저 이론적 접근을 통해 기독교세계관의 창조, 타락, 구속이란 관점에서 기독교사회복지의 핵심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인들은 일반사회복지의 특성과의 비교를 통해서 탐색하였다.

기독교사회복지를 기독교세계관으로 그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ing)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신·구약 성경의 원리를 담고 있는 기독교세계관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세계관을 살펴볼 때, 창조적 측면에서는 사상과 가치에서 일반사회복지와의 차이점을 보였다. 타락이란 영역에서 볼 때, 동기와 영역에서 그 차이점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구속에서는 주체, 목표, 방법에서 그 차이점이 나타났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방법을 사용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총 2회에 걸쳐 시도하였다.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나온 자료를 질적 연구방법의 자료분석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2회의 걸친 포커스 그룹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비 기독교사회복지 척도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예비 기독교사회복지 척도 문항을 통해 설문지를 구성하여 본 척도 문항들이 객관화를 이룰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당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것은 양적연구방법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결국 기독교사회복지 척도 타당화의 연구 과정을 통해 기독교사회복지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구 모형

2. 연구대상 및 절차

(1)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ing)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특성상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본 연구방법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저술 및 연구 업적이 있는 신학자로

서 현직 교수 2명을 먼저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기독교세계관은 기독교의 신학적 이해가 더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있을 때 수집된 연구 자료의 가치가 더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 교수로서 기독교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교수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독교세계관으로 사회복지를 접근한 연구 실적이 있는 대학 교수 1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기독교세계관을 통해 기독교사회복지를 연구한 실적이 있을 때 필요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그 다음의 대상으로는 기독교사회복지를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1명을 선정하였다. 기독교사회복지 현장의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담임 목회자 2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독교 목회자의 경우 기독교사회복지에 현저히 관계된 교계 지도자를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총 6명을 심층면접의 대상자로 결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 기독교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였다. 심층면접의 연구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면접동의서를 발송하였고, 면접동의서에 사인하는 것은 심층면접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받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의 주제의 특성으로 인해 ‘비공식 대화면접’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물론 사전에 어떤 내용의 질문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자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었지만 그것이 면접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갖지는 않았다. 기독교세계관으로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묻는 것이 큰 주제가 되고 그 외의 내용들은 연구대상자의 이야기를 줄기로 해서 면접을 이끌어 가는 자료수집방법을 취했다.

(2)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 FGI) 1차 및 2차 연구 대상 및 절차

대상자 선정할 때에 적합성 여부는 동질성(homogeneity)와 분할(segmentation)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적용하였다. 즉 포커스 그룹의 참여자들이 기독교라는 특성과 교회나 기독교 정신을 갖고 활동하는 사회복지 기관이나 단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동질성을 확보하였으며, 분할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 교수, 신학자, 사회복지 현장전문가로 서로 다른 위치 있는 특성을 고려하였다(김성재 외,

2000: 52). 물론 한 그룹 안에 두 가지의 개념을 적용하였다는 것이 아쉬움을 남는다.

포커스 그룹 연구에서 참여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포커스 그룹에 참여할 대상은 사회복지학 박사로서 기독교사회복지 관련 논문 실적이 있는 현직 사회복지학 교수 2인으로 정했다. 두 번째 대상자로서는, 신학 전공자로서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1인을 정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독교 관련 사회복지기관 현장에서 5년 이상 활동 중인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포커스 그룹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형태에는 세 가지가 있다 (Morgan, 2007: 46-49). 이 중에 높은 구조화 그룹의 형태를 취하였다. 그 이유는 논의 주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차 및 2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총2회에 걸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모두 동일한 장소에 이루어졌다. 포커스 그룹에 필요한 테이블과 의자를 마련하였고 허락을 받아 전 과정을 녹음 및 녹화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진행을 위해서 개발된 질문지에 따라 시작질문으로 시작하여 도입질문, 전환질문, 주요질문, 그리고 마무리질문을 하였다. 질문은 세부질문 작성법 (Questioning Route)의 순서에 따랐다. 연구자가 일반사회복지 정체성에서 다루는 사상, 가치, 동기, 영역, 주제, 목표, 방법 등이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기독교사회복지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묻고, 참여자는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을 따랐다.

(3) 기독교사회복지 척도 타당화 연구 대상 및 절차

예비로 개발된 기독교사회복지 척도 문항의 타당화를 위해서 연구 대상을 총 4개로 분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는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⁵⁾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주최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을 수상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사회복지 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1회에서부터 8회까지 진행된 84개 교회에 속한 실무자를 모 집단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37명이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둘째는 기독교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 59명을 대상으로 했다. 세 번째로는 교회

5)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이후로는 ‘기윤실’이라고 함.

에서 목회자로 활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제47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에 참석한 목회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자료를 수집하여 69명으로부터 설문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일반성도 가운데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앞으로 기독교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어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기독교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훈련된 집사 이상이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2010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성도들에게서 총 67명으로 설문을 받게 되었다. 네 부류의 대상으로부터 수집된 최종 설문은 232개였고, 불성실하게 답변한 12개를 제외한 총 2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조사 도구는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복지 정체성 척도 개발을 위하여 1, 2차에 걸쳐 조사되었던 포커스그룹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구성된 총 46개의 문항으로 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사회복지 정체성 척도개발을 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1)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ing)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사된 자료의 원문을 검토하며 귀납법적으로 축소하였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 관심 있는 것에 표시해 나가면서 의미 있는 주제의 ‘덩어리’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면담자가 강조했던 부분들을 묶고 연구의 목표에 적합한 문장들을 선별하였다. 유사한 내용들을 범주화 하여 묶었다. 그리고 같은 주제를 연결하고 분석하였다.

(2)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 FGI) 자료분석 방법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의 분석자료는 진행자 현장 노트, 보조진행자 현장 노트, 녹취록,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필사된 자료와 동시에 녹음 자료를 동시에 반복하여 듣고 분석을 시도하는 녹취록 의존 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것들은 2단계에서 보조진행자가 작성한 현장 노트와 진행자가 메모한 현장 노트를 참조하였다. 3단계에서는 참여자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분석하기 위해

서 영상 자료를 참조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용어, 맥락, 강도, 내적 일관성, 반응의 특이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의 자료분석방법은 John L. Colaizzi의 분석방법을 취하였다(김성재 외, 2000: 160).

(3) 기독교사회복지 척도 타당화 연구 자료분석 방법

기독교사회복지 척도 타당화를 위한 자료분석 방법은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복지 정체성 척도 개발을 위해 수집된 질문지에 대하여 적절한 문항을 탐색하기 위해 각 문항의 서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와 문항분석(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 문항삭제 시 신뢰도)을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왜도 및 첨도 ± 2 이상인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법에 의한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복지 정체성 척도 개발 문항별 공통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 EFA)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 PCA)을 사용하였고, 추출된 요인의 회전 방식은 사교회전(Oblimin Rotation)을 택하여 분석하였으며, 요인 중 .40이하의 요인은 제거하였다. 요인분석에서 널리 사용되는 요인회전 방식은 직각회전(Varimax Rotation)과 사교회전(Oblimin Rotation)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요인간의 독립적인 경우가 매우 희박하여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항상 존재하므로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0인 직각회전(Varimax Rotation) 방식보다는 사교회전이 본 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사려되어 사교회전(Oblimin Rotation)을 택하여 분석하였다(노형진·정한열, 2007: 463).

측정도구의 요인과 문항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모델의 구조적 타당도 평가에 활용된 전반적인 적합 지수들을 검증하였다. 그 지수들은 카이제곱치(χ^2)와 확률치(p), 카이제곱치를 자유도로 나눈 $Q(\chi^2/df)$ 지수, 증분적합도지수(TLI), 비교적합도지수(CFI), 표준부합치(NFI), 원소간평균차이(RMR)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문항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를 검증하였으며, 표본의 개인적 특성을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계패키지프로그램 SPSS 17.0 for Windows와

AMOS 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독교세계관의 적절성을 위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ing)

심층면접의 연구 결과 기독교사회복지를 기독교세계관으로 그 정체성을 찾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복지대상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독교세계관으로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이란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사회복지의 목표가 일반사회복지와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기독교세계관에 담긴 구속의 의미를 복지에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찾는 것은 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기독교세계관으로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말할 때,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사회복지를 이해시키는데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사회복지를 다른 측면으로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으나 가장 포괄적이고 큰 틀에서 볼 때 기독교세계관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세계관으로 바라 볼 때 복지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세계관으로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일반사회복지와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반사회복지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행복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 보는 복지이기 때문에 기독교세계관인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기독교사회복지를 찾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2. 1·2차 포커스 그룹(FGI) 연구 결과

1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와 2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의 연구 결과를 분석

한 결과를 종합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 일반사회복지와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차이점

	구분	일반사회복지	기독교사회복지
창조	사상	인간중심의 휴머니즘 (하나님이 배제된 인본주의 사상)	신본주의적 휴머니즘 (신본주의가 전제된 휴머니즘 사상)
	가치	자유, 평등, 정의, 민주주의	창조질서 안의 자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평등, 하나님 나라의 정의
타락	동기	인류애(하나님 부재한)	하나님 사랑이 전제된 이웃 사랑
	영역 (범위)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기독교적 영적차원
구속	주체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개인	교회, 기독교기관, 기독교관련단체, 기독교공동체, 기독교신자개인
	목표	인간의 행복 복지국가	하나님의 나라 창조질서의 회복
	방법	사회복지학, 인접학문의 이론과 실천기술	성경에 기초한 사회복지 인접 학문의 이론과 실천기술, 총체적 회개

3. 기독교사회복지 정체성 척도 개발 타당화

(1) 서술통계 및 문항 분석

〈표3〉 서술통계 및 문항 분석 결과

문항	문항 내용	M±SD	왜도	첨도	수정된 항목 전체상관	문항 삭제시 신뢰도
1	기독교사회복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생겨난 ‘이웃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4.35±.817	-1.396	2.201	.452	.971

문항	문항내용	M±SD	왜도	첨도	수정된 항목 전체상관	문항 삭제시 신뢰도
2	기독교사회복지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대강령이 근거가 된다.	4.40± .796	-1.382	2.086	.544	.971
3	기독교사회복지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이웃 사랑이다.	3.88± 1.015	-.570	-.333	.696	.970
4	일반사회복지의 동기는 '이타주의'라고 한다면, 기독교사회복지의 동기는 '거룩한 이타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4.38± .752	-.942	.076	.382	.971
5	주변에서 '아름다운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실천하지 않는다.	3.30± 1.243	-.164	-.944	.366	.971
6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 하고 실천한다.	4.14± .962	-1.094	.981	.615	.971
7	'하나님 사랑'이 제외된 '이웃 사랑'의 실천은 기독교사회복지라고 말하기 어렵다.	3.64± 1.329	-.591	-.890	.617	.971
8	기독교사회복지의 사상은 신본주의적 휴머니즘 즉 신본주의가 전제된 휴머니즘 사상이다.	3.77± 1.091	-.688	-.131	.652	.971
9	사람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3.92± 1.081	-.963	.382	.565	.971
10	'나와 너(클라이언트)'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	3.99± .956	-.742	.216	.690	.971
11	클라이언트(대상자)를 대할 때에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인간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4.16± .917	-1.120	1.227	.657	.971
12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적 휴머니즘 사상을 더 염두에 두었다.	3.95± .961	-.553	-.545	.768	.970
13	기독교사회복지는 창조질서(예, 이성간의 결혼)에 어긋난 휴머니즘을 잘못 된 것으로 본다.	3.42± 1.274	-.407	-.943	.384	.971
14	신본주의적 휴머니즘은 인본주의적 휴머니즘 보다 인간을 더 깊고 넓게 존중하는 사상이다.	4.03± 1.022	-.893	.218	.659	.971

문항	문항 내용	M±SD	왜도	첨도	수정된 항목 전체상관	문항 삭제시 신뢰도
15	진정한 인간애(人間愛)는 신본주의적 휴머니즘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4.04±.952	-.914	.707	.709	.970
16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독교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돈이 없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3.83±1.004	-.613	-.092	.364	.972
17	기독교사회복지사는 기독교 영성 안에서 자신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4.40±.724	-.994	.393	.679	.971
18	기독교사회복지사는 기독교사회복지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4.40±.767	-1.253	1.557	.619	.971
19	기독교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4.36±.749	-.972	.350	.686	.971
20	기독교사회복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4.50±.767	-1.682	2.893	.568	.971
21	기독교사회복지사를 뽑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선택해야 한다.	4.10±.908	-.799	.005	.785	.972
22	기독교사회복지에서 '자유'에 대한 가치란 창조질서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4.21±.908	-1.129	1.078	.721	.970
23	기독교사회복지에서 '평등'의 가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찾는다.	4.31±.830	-1.163	1.324	.640	.971
24	기독교사회복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정의'라는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	4.13±1.069	-1.274	1.027	.619	.971
25	실천현장에서 만일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혼란으로 상담을 의뢰해 온다면 동성애는 '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할 것이다.	3.60±1.393	-.587	-.983	.667	.971
26	실천현장에서 민주주의 가치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기독교사회복지에서는 때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3.43±1.110	-.340	-.557	.542	.971

문항	문항 내용	M±SD	왜도	첨도	수정된 항목 전체상관	문항 삭제시 신뢰도
27	기독교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미혼모가 찾아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한다.	3.80± 1.160	-.782	-.167	.689	.971
28	‘자유’라는 가치에서 볼 때,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사회복지가 차별성을 갖는 것은 일반사회복지가 ‘하나님이 배제된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3.77± 1.054	-.682	-.105	.765	.970
29	기독교사회복지사는 자살을 시도하려는 클라이언트에게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다.	3.15± 1.374	-.116	-1.182	.564	.971
30	기독교사회복지에서 요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4.20± 1.058	-1.295	.841	.695	.972
31	기독교사회복지의 영역(범위)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그리고 ‘기독교적 영적 차원’이 포함된다.	4.21± .812	-.814	.098	.600	.971
32	기독교적 영적 접근을 시도한 적이 있다.	3.85± 1.035	-.782	.070	.702	.970
33	기독교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말씀 선포, 찬송,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3.80± 1.096	-.771	-.052	.598	.971
34	기독교사회복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	4.15± .910	-.879	.289	.686	.971
35	기독교사회복지의 호스피스 실천(말기 환자의 간호 영양 서비스)은 천국을 준비시키는 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34± .847	-1.160	.809	.678	.971
36	기독교사회복지에서의 영적 접근의 실천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차원을 말하는 것이다.	4.16± .887	-.883	.405	.731	.970
37	기독교 요양보호 실천에서는, 기도와 찬송 등도 클라이언트에게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	4.20± .875	-.988	.701	.659	.971
38	‘이 세상에서의 행복’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둔다.	3.98± 1.031	-.812	.041	.746	.970

문항	문항 내용	M±SD	왜도	첨도	수정된 항목 전체상관	문항 삭제시 신뢰도
39	기독교사회복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상실된다면 기독교사회복지라고 말하기 매우 어렵다.	4.18±1.047	-1.324	1.189	.700	.970
40	기독교사회복지의 ‘복지국가’를 이루는 것 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둔다.	3.80±1.126	-.731	-.255	.706	.970
41	기독교사회복지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둔다.	4.10±1.009	-1.054	.609	.716	.970
42	기존의 일반사회복지 이론과 실천 기술 그리고 관련 인접 학문을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에 적용할 때 비성경적인 내용은 성경적인 방향으로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3.73±1.080	-.579	-.286	.785	.970
43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현장에서 활용되는 이론과 실천기술은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	4.02±.833	-.417	-.589	.725	.970
44	기독교사회복지의 ‘회개’를 통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	3.83±1.010	-.613	-.124	.760	.970
45	기독교사회복지사는 실천현장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3.96±.928	-.576	-.215	.765	.970
46	기독교사회복지사는 매우 효과가 좋다고 인정받는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비 성경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86±1.020	-.635	-.152	.325	.970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복지 정체성 척도 개발에 관한 적절한 문항을 탐색하기 위하여 각 문항의 서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와 문항분석(수정된 항목 전체상관, 문항삭제 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1,2차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개발된 46개 질문문항에서 분석결과 왜도나 첨도가 ±2.0을 넘어서는 1, 2, 20번 문항이 1차적으로 부적합 문항으로 삭제되었으며, 수정된 문항 전체 상관이 .40 이하인 4, 5, 13, 46문항이 2차적으로 부적합 문항으로 삭제되었다. 한편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971으로 나타났으며, 문항삭제 시 신뢰도가 높아지는 문항으로 16, 21, 30문항이 나타나 3차적으로 삭제되었다.

결국 최종 문항 분석을 통하여 1, 2, 4, 5, 13, 16, 20, 21, 30, 46번의 10개 문항이 최종적으로 제거되었다. 따라서 서술통계와 문항분석으로 통하여 총 46개의 문항에서 10개의 문항이 제거된 총 36개 문항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의 자료로서 활용되었다.

(2) 탐색적 요인 분석

〈표4〉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복지 정체성 척도 개발의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	문항	요인								
		1	2	3	4	5	6	7	8	
영역	34	기독교사회복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	.729	.209	.183	.115	.102	.077	.309	.075
	31	기독교사회복지의 영역(범위)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그리고 '기독교적 영적 차원'이 포함된다.	.716	.202	.229	.147	.094	.064	.152	.211
	33	기독교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말씀 선포, 찬송,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704	.252	.151	.190	.354	.169	.103	.045
가치	22	기독교 사회복지에서 '자유'에 대한 가치관 창조질서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298	.719	.207	.216	.154	.134	.020	-.007
	23	기독교사회복지에서 '평등'의 가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 되었다는 사실에서 찾는다.	.179	.713	-.001	.107	.075	.139	.295	.245
	24	기독교사회복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정의'라는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	.197	.697	.320	.062	.022	.170	.118	.051
	26	실천현장에서 민주주의 가치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기독교사회복지에서는 때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119	.669	.128	.201	.216	.217	.285	.121
주체	18	기독교사회복지사는 기독교사회복지 주체이신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152	.189	.737	.224	.018	.152	.261	.024
	17	기독교사회복지사는 기독교 영성 안에서 자신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257	.173	.714	.196	.040	.205	.188	.227

요인		문항	요인							
			1	2	3	4	5	6	7	8
동기	3	기독교사회복지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이웃 사랑이다.	.175	.217	.288	.699	.132	.232	-.040	.097
	6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실천한다.	.254	.074	.224	.691	.132	.239	.170	-.051
목표	38	‘이 세상에서의 행복’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둔다.	.279	.166	.190	.064	.654	-.014	.256	.013
	41	기독교사회복지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둔다.	.234	.239	.106	.182	.593	.115	.245	-.026
방법	44	기독교사회복지의 ‘회개’를 통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	-.011	.088	.255	.160	.096	.715	.171	.130
	43	기독교사회복지사는 실천현장에서 활용되는 이론과 실천기술은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	.192	.278	.253	.130	.019	.668	-.020	.029
사상	12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적 휴머니즘 사상을 더 염두에 두었다.	.142	.147	.196	.020	.185	-.004	.761	.042
	10	‘나와 너(클라이언트)’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	.363	.108	.202	.228	.228	.087	.619	-.015
실천	27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미혼모가 찾아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한다.	.284	.189	.260	.242	.067	.080	.018	.685
	29	기독교 사회복지사는 자살을 시도하려는 클라이언트에게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다.	.239	.179	.206	.089	.086	.255	.245	.667
	35	기독교 사회복지의 호스피스실천(말기 환자의 간호 요양 서비스)은 천국을 준비시키는 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30	.221	.276	.237	.081	-.048	.038	.655
	25	실천현장에서 만일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혼란으로 상담을 의뢰해 온다면 동성애는 ‘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할 것이다.	.220	.278	.192	.164	.108	.169	-.062	.653
		고유치(Eigen Values)	20.787	2.604	2.033	1.408	1.362	1.145	1.004	1.003
		분산(%)	45.189	5.660	4.420	3.061	2.961	2.489	2.184	2.181
		누적(%)	45.189	50.850	55.270	58.331	61.292	63.781	65.965	68.145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복지 정체성 척도 개발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래서 위의 서술통계 및 내용 타당도 검증 문항분석에 의하여 선정된 36개의 문항들이 요인들 간에 어떻게 구조화 되어 있는지, 또한 각각의 요인에 상응하는 문항군집이 적절히 이루어져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고, 회전 방식은 사교회전(oblimin rotation)을 택하여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8개 요인은 고유치가 모두 1.0이상이었으며, 전체변량은 총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총 36개의 항목 중 .50이하의 적재량을 나타낸 15개의 문항(7, 8, 9, 11, 14, 15, 19, 28, 32, 36, 37, 39, 40, 42, 45)을 제외한 21개의 문항으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복지 정체성 척도가 8개 요인으로 개발 완성되었다. 최종 8개 요인 및 21개 하위문항을 각 요인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으로 영역의 요인 적재치 범위는 3개 문항(.72~.7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항목의 내용은 “기독교사회복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 “기독교사회복지의 영역(범위)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그리고 ‘기독교적 영적 차원’이 포함된다.” 기독교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말씀선포, 찬송,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가치’의 요인으로서 하위항목은 4개문항(.71~.66)이며 하위문항의 내용은 “기독교 사회복지에서 ‘자유’에 대한 가치란 창조질서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기독교사회복지에서 ‘평등’의 가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 되었다는 사실에서 찾는다.” “기독교사회복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정의’라는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 “실천현장에서 민주주의 가치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기독교사회복지에서는 때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주체’의 요인으로서 하위항목은 2개 문항(.73~.71)이며 하위문항의 내용은 “기독교사회복지사는 기독교사회복지 주체이신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기독교사회복지사는 기독교 영성 안에서 자신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의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는 주체요인은 ‘동기’요인으로서 하위항목은 2개 문항(.699~.691)이며 하위

항목은 “기독교사회복지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실천한다.”의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다섯 번째는 ‘목표’요인으로서 하위문항으로는 2개 문항(.65~.59)이며 하위문항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둔다.” “기독교사회복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둔다.”로 하위문항이 구성되었으며,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방법”요인으로서 하위문항으로는 2개 문항(.71~.66)이며, 하위문항의 내용은 “기독교사회복지는 ‘회개’를 통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 “기독교사회복지사는 실천현장에서 활용되는 이론과 실천기술은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로 하위문항이 구성되었으며, 일곱 번째 요인은 “사상”요인으로서 하위문항은 2개 문항(.76~.61)이며, 하위문항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적 휴머니즘 사상을 더 염두에 두었다.” “나와 너(클라이언트)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로 하위문항이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실천’요인은 4개 문항(.68~.65)이며 하위문항의 내용은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미혼모가 찾아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한다.” “기독교 사회복지사는 자살을 시도하려는 클라이언트에게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다.” “기독교 사회복지의 호스피스실천(말기 환자의 간호 요양 서비스)은 천국을 준비시키는 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실천현장에서 만일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혼란으로 상담을 의뢰해 온다면 동성애는 ‘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할 것이다.”로 각각 나타났으며, 8개의 요인의 하위요인 모두 .50이상의 양호한 요인 적재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본 및 요인의 표준형성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KMO(Kaiser-Mayer-Olkin) 지수 값을 보면 .951로 나타났다. KMO 값은 0.90이상이면 매우양호, 0.80이상이면 양호하며, 0.60, 0.70정도 이면 보통이고, 0.50이하로 나타나면 부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질문지는 KMO값이 0.80이상이므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적절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형성 검증(Bartlett's Test of Sphericity) 결과에서도 9310.481, $p < .001$ 로 나타나 요인분석 하기에 적절한 수준임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복지 정체성 척도 개발을 위하여 구성되었던 46개의 문항을 서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와 문항분석(수정된 항목 전체상관, 문항삭제 시 신뢰도)와 탐색적 요인분석의 단계를 거치면서 요인들 간의 공

통성과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25개의 항목이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8개요인(영역, 가치, 주체, 동기, 목표, 방법, 사상, 실천)과 하위문항으로 21개의 문항이 최종 개발되었다.

(3) 신뢰도 검증

〈표5〉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복지 정체성 척도의 문항 신뢰도

요인	문항	Chronbach's alpha	total Chronbach's alpha
영역	기독교사회복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	.859	.955
	기독교사회복지의 영역(범위)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그리고 '기독교적 영적 차원'이 포함된다.		
	기독교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말씀선포, 찬송,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치	기독교 사회복지에서 '자유'에 대한 가치란 창조질서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816	
	기독교사회복지에서 '평등'의 가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 되었다는 사실에서 찾는다.		
	기독교사회복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정의'라는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		
주체	실천현장에서 민주주의 가치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기독교사회복지에서는 때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844	
	기독교사회복지사는 기독교사회복지 주체인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기독교사회복지사는 기독교 영성 안에서 자신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동기	기독교사회복지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실천한다.	.758	
	'이 세상에서의 행복'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둔다. 기독교사회복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둔다.		
방법	기독교사회복지의 동기는 '회개'를 통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	.928	
	기독교사회복지사는 실천현장에서 활용되는 이론과 실천기술은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		
사상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적 휴머니즘 사상을 더 엄두에 두었다.	.851	
	'나와 너(클라이언트)'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		

요인	문항	Chronbach's alpha	total Chronbach's alpha
실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미혼모가 찾아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한다.	.823	
	기독교 사회복지사는 자살을 시도하려는 클라이언트에게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다.		
	기독교 사회복지의 호스피스실천(말기 환자의 간호 요양 서비스)은 천국을 준비시키는 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실천현장에서 만일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혼란으로 상담을 의뢰해 온다면 동성애는 '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할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복지 정체성 척도 개발을 위하여 구성항목간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구성항목에는 영역, 가치, 주체, 동기, 목표, 방법, 사상, 실천의 8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성항목간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동일한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항목을 개발하여 항목 간 상관관계가 낮은 것을 제외시킴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인 Ch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하여 세부 항목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α 값이 0.7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저 허용치 0.7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신뢰성 분석 결과 구성개념의 신뢰도가 0.7 이상인 것은 내적 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방법”의 문항은 Chronbach's alpha 값이 0.9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목표”는 0.874로, “영역”은 0.859, “사상”은 0.851로 “주체”는 .844로 여섯 번째로 “실천”은 0.823, 일곱 번째 “가치”는 0.816로 마지막으로 “동기”는 0.758로 측정개념이 모두 신뢰성을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총 21개의 문항의 Chronbach's alpha 값은 .955으로 나타났다 매우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신뢰성 분석 결과 구성개념의 신뢰도가 모두 0.8 이상인 것은 내적 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회과학 분야의 신뢰도가 .60 이상이면 문제가 없다는 점(Van de Ven, Andrew H. & Ferry, Diane L., 1980: 132)에 비추어 비교적 안정적인 내적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확인적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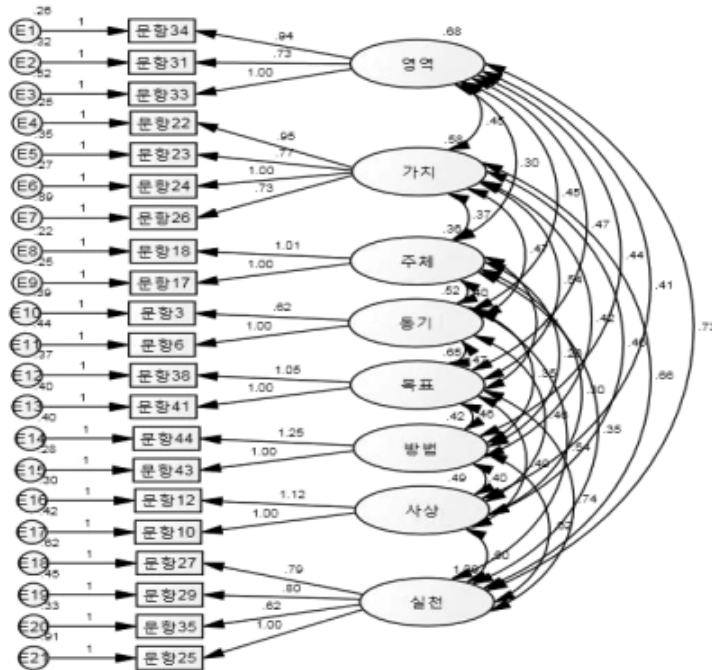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통해 추출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

복지 정체성 척도 개발의 8가지 요인(영역, 가치, 주제, 동기, 목표, 방법, 사상, 실천)에 대한 하위문항 변수들 간에 관계가 적절하게 성립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사회과학적으로 사용되는 3가지의 적합도 수용지수(TLI, CFI, RMR)를 분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모형의 적합도 평가기준은 RMR은 0에 가까울수록,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는 0.9이상으로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이 적합하다(김계수, 2002: 82 ; 조현철, 2003: 4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적합도 수용지수(TLI, CFI, RMR) 평가기준에 준하여 측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표6〉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측정 모형 적합도 지수

구분	카이자승 (χ^2)	자유도 (df)	증분 적합도 지수(TLI)	비교 적합도 지수(CFI)	원소간 평균차이 (RMR)
적합지수	350.958	161	.901	.923	.049



[그림2]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복지 정체성 척도 개발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 모형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제시한 측정모형이 증분적합지수(TLI)는 .901, 비교적합도지수(CFI)는 .923, 원소간 평균차이(RMR)는 .049 등으로 측정되어 최초측정모형도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에 유의함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사회복지 정체성 척도 개발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이 기준에 의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8개요인(영역, 가치, 주제, 동기, 목표, 방법, 사상, 실천)과 하위 21개의 문항은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복지 정체성 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는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내 주었다. 그러므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사회복지 정체성 척도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7〉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복지 정체성 척도 개발

요인	문 항
영역	기독교사회복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
	기독교사회복지의 영역(범위)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그리고 ‘기독교적 영적 차원’이 포함된다.
	기독교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말씀선포, 찬송,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치	기독교 사회복지에서 ‘자유’에 대한 가치란 창조질서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기독교사회복지에서 ‘평등’의 가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 되었다는 사실에서 찾는다.
	기독교사회복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정의’라는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
주제	실천현장에서 민주주의 가치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기독교사회복지에서 는 때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사회복지사는 기독교사회복지 주체이신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기독교사회복지사는 기독교 영성 안에서 자신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동기	기독교사회복지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실천한다.
목표	‘이 세상에서의 행복’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둔다.
	기독교사회복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둔다.

요인	문항
방법	기독교사회복지는 '회개'를 통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
	기독교사회복지사는 실천현장에서 활용되는 이론과 실천기술은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
사상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적 휴머니즘 사상을 더 엄두에 두었다.
	'나와 너(클라이언트)'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
실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미혼모가 찾아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한다.
	기독교 사회복지사는 자살을 시도하려는 클라이언트에게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다.
	기독교 사회복지의 호스피스실천(말기 환자의 간호 요양 서비스)은 천국을 준비시키는 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실천현장에서 만일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혼란으로 상담을 의뢰해 온다면 동성애는 '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사회복지 정체성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의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창조, 타락, 구속이란 관점에서 기독교사회복지의 요인들을 일반사회복지와 비교하며 논하였다. 그 다음으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적절한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ing)을 먼저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포커스 그룹(Focus Group Interview)을 두 차례 실시하여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두 차례의 포커스 그룹의 결과를 통해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 포커스 그룹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기독교사회복지 정체성 척도 개발을 위한 설문문항을 46개의 문항을 도출하였다. 예비로 개발된 기독교사회복지 척도 문항의 타당화를 위해서 첫째는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주최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을 수상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사회복지 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둘째는 기독교사회복지 기관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목회

자로 활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마지막으로 일반성도 가운데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앞으로 기독교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어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네 부류의 대상으로부터 수집된 최종 설문은 232개 중 불성실하게 답변한 12개 설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2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220명을 대상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각 문항의 서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와 문항분석(수정된 항목 전체상관, 문항삭제 시 신뢰도)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왜도 및 첨도가 ± 2 이상으로 나타난 문항들이 나타나 이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 법에 의한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항별 공통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 EFA)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심층면접의 결과,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기독교세계관으로 찾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 일반사회복지와는 다른 분명한 기독교 사회복지의 시각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2차 포커스 그룹의 연구 결과, 기독교 사회복지 정체성 척도 개발을 위한 46개 예비 설문 문항이 개발 되었다. 그리고 서술통계과 문항분석을 통해 10개의 문항이 제거된 총 36개의 문항이 확정되어 탐색적 요인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를 가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최종 21개 문항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복지 정체성 척도로 개발 되었다.

이상과 같이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복지 정체성 척도 개발을 위하여 구성되었던 46개의 예비 문항들은 서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와 문항분석(수정된 항목 전체상관, 문항삭제 시 신뢰도), 탐색적요인분석의 단계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요인들 간의 공통성과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25개의 항목이 제거되었다. 결국 8개요인(영역, 목표, 방법, 동기, 사상, 주체, 가치, 실천)에 하위문항으로 21개의 문항이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사회복지 정체성 척도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차후 과제인 기독교사회복지 실천 모형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 기독교사회복지가 일반사회복지와 달리 현장에서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이론적인 부분에서 정립되었다면 구체적인 현장에서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각 교회의 규모별로 구체적인 실천 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으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각자의 기독교사회복지 기관들이 어느 정도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나갈 수 있다.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복지 실천하고 있는 기독교사회복지 기관의 기관장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 실태 평가를 통하여 기독교사회복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추후 기독교사회복지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본다. 특히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찾는 면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조직신학적 관점을 통하여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찾을 수 도 있고 역사신학적 관점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 논문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더욱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과 및 실천 모델에 대한 연구들이 확장되고 심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기정 (2004).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복지모형개발.” 『백석저널』. (5): 43-62.
- 강은실 (1997). “알콜중독자 부인의 영적변화의 경험.” 『통합연구』. 10(1): 121-171.
- 김계수 (2002).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유진사.
- 김동춘 (2003). “교회적 디아코니아와 국가적 사회복지: 사회복지에 대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교회적 대안인가.” 『성경과 신학』. 33.
- 김성재 외 (2000). 『포커스그룹 연구방법』. 서울: 현문사.
- 김용일 (2003). “사회복지학 교육을 통한 정체성 확립.”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제2003권 1호.
- 김은수 (2001). “기독교사회복지의 신학적 패러다임.” 『신학사상』. (112): 163-182.
- 노형진·정한열 (2007). 『한글 SPSS 기초에서 응용까지』. 서울: 형설출판사.
- 박용순 (1999). 『사회복지개론』. 서울: 학지사.
- 배성권·오창석 (2006). “기독교세계관에서 본 한국 기독교병원의 방향.” 『로고스경영연구』. 4(2). 25-47.
- 양승훈 (1996). 『기독교세계관의 이해와 적용』. 서울: CUP.
- 이부덕 (2001). “신약성서의 사회복지사상.” 『기독교와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편. 서울: 흥익재.
- 장동민 (2006). “교회 사회사업 핵심가치 정립의 모델과 원리.” 『교회사회사업』. (4): 39-59.
- 전선영 (2005). “사회복지 가치를 매개로 한 사회복지 교육과 옹호 태도 및 전략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7(4). 35-65.
- 조현철 (2003). 『구조방정식 모델』. 서울: 석정출판사.
- 황봉환 (2005). “초대교회 안에서 실천된 헌금과 분배 관계에 대한 신학적 평가.” 『로고스경영연구』. 3(2). 91-96.
- Conn, M. Harvie (1992). *Evangelism: doing justice and preaching grace*. 김남식 역(1984) 『복음전도와 사회정의』. 김남식 역. 서울 엠마오.
- Hasker, William (1992). “Faith-Learnig Intergration:An Overview.” *Christian Scholar’s Review*. march 1992.
- Holmes, Arthur F. (1984). *Contours of a world view*. 이승구 역 (1985) 『기독교 세계관』. 서울: 엠마오.
- knudsen, D. Robert. (1954). *Christian Philosophy*. 박삼영 역 (1988) 『기독교세계관』. 서울: 라브리.
- Morgan, David L. (1997).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김성재 외 공역 (2007). 『질적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 서울: 군자출판사, 2007.
- Poe, Mary Anne (2002). “Christian Worldview and Social Work.” in Dockery, D.S & Thornbury, G. A. eds. *Shaping a Christian Worldview: The foundations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Nashville, TN: Broadman and Holman Publishers.
- Reamer, frederic G. (1999), *Social work values and ethics*. 2r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Schaeffer, Francis A. (1979). *Art & the bible*. 조병수 역(1981). 『예술과 성경』. 서울: 성광문화사.

Van de Ven, Andrew H. · Ferry, Diane L. (1980). *Mea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s*. New York: Wiley.

<http://www.welfare.net/socialworker/Principle.jsp>. (검색일 2009. 3. 7).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Social Welfare Identity Scale based on the Christian World View

Kwang Soo Choi(Chongshin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Cent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scale for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identity based on the Christian world view.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I searched main theoretical points of Christian social welfare, which is creation, falling and redemption as a Christian view of the world. And I made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key points between Christian social welfare and general social welfare. Second, I carried out In-depth interview with specialist to get the cause that why we need a Christian world view for the identity of Christian social welfare. Third, I carried out two FGI(Focus group Interview) to make pre-questions to develop a scale for the identity of Christian social welfare. Fourth, with the conclusion from the 2 FGI, I made pre-questions about Christian social welfare, and I composed the final questionnaire for the scale. And I carried out a quantitative investigation with statistical analysis to check whether these questions are objective or not.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Here we have the development of scale for the identity of Christian social welfare based on the Christian world view. The scale has 8 main factors, which are range, value, subject, motivation, goal, method, thoughts and practice and 21 sub-items.

Key Words: Christian social welfare, Identity of Christian social welfare, Christian world view, Development of a scale, In-depth interview, Focus Group Interview

